무등경기장 부지 <국가 소유> 맞교환 5·18묘지+광주전산센터 부지 <광주시 소유>

내년 3월께 소유권 이전…市, 취득 부지 숲·문화공간 조성 등 검토

국가 소유인 무등경기장 부지가 광주시 공유재산인 국립 5·18민주묘지 및 광주전산센터 부지와 맞교환된다. 광주시는 낡은 무등경기장 대신 3만석의 국제 규모 야구장 신축을 추진 중이어서 맞교환 후 취득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1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175회 정례회를 앞두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국유재산인 북구 임동 8만4천581㎡(22필지)의 무등경기장 부지를 광주시 소유인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6필지·16만6천734㎡)와 서구 풍암동 광주전산센터(9필지·3만3천805㎡) 부지와 등가(等價)교환 방식으로 맞교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등 재산관리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맞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광주시가 공시지가와 시세 등을 토대로 대상 부지 지가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시가 사용해온 무등경기장 부지는 249억여원, 국가가 사용해온 5·18묘지와 광주전산센터 부지는 200억여원으로 잠정 평가됐다. 이에 따라 맞교환하려면 시가 49억원을 들여 잔여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시는 의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이달 중 해당 부지에 대한 공식 감정평가와 교환 및 유상매입 신청,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3월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무등경기장 내 야구장이 노후돼 신축을 추진 중인데다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해온 국유재산이 내년부터는 유상 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간 8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돼 맞교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등경기장 부지를 취득한 이후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건립된 지 40년이 지난 무등경기장 야구장 대신 3만석의 국제규모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새 야구장을 광주지하철 1호선 종점인 광산구 옥동차량기지 그린벨트 주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무등경기장 일대는 숲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구장 신축을 위해 1억7천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며 무등경기장 활용 방안도 용역 과제에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는 내년 2월께 나올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디지털시대 이끌 그린카·로봇 한자리에

'광주 국제자동차·로봇전' 오늘 DJ 센터 개막

세계 각국 120개 업체·바이어 200여명 참가

차세대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국내외 그린카(green car)를 비롯 국내 최초의 '광(光)로봇', 인조인간형 로봇, 애완견 로봇 등 디지털 첨단시대를 이끌 자동차와 로봇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지역전략산업인 자동차와 로봇을 주제로 한 '2008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을 6일부터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일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120개 업체와 2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한다.

◇**완성차 분야**=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들이 대거 선보인다. 'CT&T'사의 전기자동차와 광주의 (주)탑알앤디가 순수 국내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수륙양용 특수목적 전기자동차 모델, 전남대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들이 총출동한다.

롤스로이스 팬텀이나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좀처럼 보기 힘든 슈퍼카들도 최신형 기종으로 선보인다. 마니아들을 위한 튜닝카와 대학생들이 제작한 자동차, 캠핑카, 카오디오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자동차 부품**='광주자동차 부품 미니클러스터'에 소속된 30여개 업체가 첨단 신기술을 자랑한다. 출품된 부품은 특수자동차의 저소음형디지털 제어시스템, 공기정화기, 공기필터, LCD룸미러 등이며, (주)대하엔지니어링에서 자체 제작한 로봇과 수입 다관절 로봇제품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자동차·로봇 디자인특별관'에서는 광주 첨단산업의 디자인 비전을 제시한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에서도 각종 자동차와 로봇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을 내놓는다.

◇**로봇분야**=광주 레드원테크놀러지(주) 로봇연구소는 개막식에 맞춰 국내 최초로 '광로봇'을 시연하며, 전남대 로봇연구소가 개발한 화초 가전로봇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대한민국 로봇로드쇼'에서는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첨단로봇 60여종을 탑재,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세계 2번째 인간형 로봇인 '에버-원'(솔루보), 애완견로봇인 제니보(다사로봇), 휴머노이드 교육로봇인 바이올로이드(로보티즈), 공연로봇인 로보노바(미니로봇), 청소로봇인 로보킹(LG전자) 등 지능형 로봇이 소개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市-시민단체 '시정 현안' 머리 맞댄다

오늘 민·관합동 워크숍

지역경제와 사회복지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댄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오후 3시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NGO 관계자와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분야 시정현안을 주제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창곤 광주대 교수(사회복지학부)가 '광주지역 사회복지 효율성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박남언 시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이 '2009광주세계광엑스포를 통한 광산업 활성화와 시민참여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벌인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민·관합동워크숍을 열어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회 실시해온 워크숍을 올해는 세 차례로 늘렸다. /정후식기자 who@r

광주여성취업·창업박람회 광주시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8 광주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여성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박람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기업체 관계자들과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문화수도 차별화 급하다"

부산·서울 유사한 '문화도시' 잇단 추진

부산 '아시아 영상문화중심도시' 서울 '창의문화도시' 등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들이 타 시도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문화수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을 대폭 손질하는 등 차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성구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FOCUS 광주'에 게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과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의 비교 검토'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의 영상문화 특별법안과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비교할 경우 조성사업 대상지와 주제만 다를 뿐 매우 유사한 법안으로, 국책사업인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타 시도의 유사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거나 탄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타 시도의 특별법안 제정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광주문화수도 조성 특별법을 한층 구체화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차별화와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광주문화수도 특별법에 성격이 모호하게 규정된 아시아문화,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문화교류 등 사업 등의 사업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영기자기자 penfoot@kwangju.co.kr